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 ‘웰 다잉 목회’ 어떻게?

제42회 신촌포럼, 9일 신촌성결교회서 열려

제42회 신촌포럼이 9일 서울 신촌성결교회(담임 박노훈 목사) 아천홀에서 ‘웰다잉(Well-Dying) 목회,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렸다. 두 번의 강의와 논찬,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삶의 유종의 미 거두기 위한 기독교 의례

김형락 박사(서울신대 예배학 교수)는 ‘마주한 죽음? 그것을 위한 기독교 의례나, 우리, 하나님의 기원과 이야기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상황에서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삶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기독교 의례에 대해 고찰했다.

김 박사는 이러한 의례의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나를 기억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나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잊지 못할 주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꼽았다. 아울러 그는 “의례의 마지막은 화해와 용서, 그리고 거룩한 교통을 위한 성만찬 의례를 거행하는 것으로 마치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된 ‘모범 의례’의 구체적 예시를 들기도 한 그는 이러한 의례가 “죽음이 아니라 피할 수 없고 두려움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필연적 통과 과정을 자신을 비롯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시하고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 함께 맞을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 의례를 통해 참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분리의 단계, 나와 맺은 모든 이들과의 관계를 성찰하고 용서와 화해의 커뮤니티사로 전이하는 단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 모두가 거룩한 교통을 하는 통합의 단계를 맞게 된다”고 했다.

김 박사는 “또한 이 의례는 신자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지향하기 위한 소망을 잠식한 모든 이들에게 심어줄 것”이라고 했다.

◆“죽음이 삶을 더 가치있게 만든다”

두 번째 강의를 윤득형 박사(한국에도 심리상담협회 회장)가 ‘삶은 죽음을 통해 성장하고, 슬픔은 표현됨으로 치유된다’라는 제목으로 했다. 윤 박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기 위한 죽음에 대한 성찰,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남겨진 이들의 슬픔 치유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죽음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절대 진리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불확실성 뿐”이라며 “사실 이러한 불확실함이 인간의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죽음이 없으면 좋겠지만 죽음이 있기에 삶이 존재하고, 죽음이 삶을 더 가치있게 만든다”고 했다.

윤 박사는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

처럼 우리 삶에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음이 없는 듯 살아간다”며 “그렇게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첫째, 죽음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현재 주어진 삶을 더 잘 살아가는 것”이라며 “이는 유언장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례 계획을 세우는 것 등의 실제적인 준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둘째, 남겨진 자를 위한 슬픔 치유”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은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역으로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상실 이후에 겪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애도의 과정에 있는 누군가를 돕기 위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슬픔을 치유하는 것의 시작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어



제42회 신촌포럼이 9일 신촌성결교회서 열렸다.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떤 경우에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이날 박노훈 목사(신촌포럼 대표)가 개회사를 전했으며, 이상직 박사(신촌포럼 위원장)가 인사하고 포럼을 소개했다. 또 포럼 패널로는 김영한 목사(신림교회 담임)와 전범진 목사(일심교회 담임)가 참여했다.

신촌포럼은 신학과 목회의 이원화를 극복하고 양자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모색하는 한편,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와 사회 주년의 주요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된 모임이다. 지난 1997년 4월 신촌성결교회에서 ‘한국교회와 21세기: 진단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첫 포럼이 열렸다. 김진영 기자

“교회 본질은 선교... 사역 우선 순위인 선교 본질 되찾자”

오는 7월 1-3일 열리는 프레스시 컨퍼런스 관련 기자회견 열려

프레스 무브먼트(공동대표 황덕영 목사·이상훈 교수)가 주최하는 프레스 컨퍼런스(FRESH CONFERENCE)가 ‘한계에 직면한 한국교회, 복음전파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새중앙교회(담임 황덕영 목사)에서 열린다.

이에 대한 기자회견이 황덕영 새중앙교회 담임목사, 이상훈 미성대(AEU) 총장, 윤은성 목사(어벤데이일벤처스 센터장)가 참여한 가운데 9일 새중앙교회에서 열렸다.

올해 프레스 컨퍼런스에는 에드 스테처

테처(Ed Stetzer) 탈봇 신학교 학장과 라이언 샌더스(Brian Sanders) 목사(Underground Network 설립자)가 메인 스피커로 나선다. 에드 스테처 학장은 선교적 교회와 교회 개혁, 복음전도에 대해 연구한 권위자다. 브라이언 샌더스 목사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모인 성도들이 일상에서 선교하도록 독려하는 언더그라운드 교회 운동가 중 한 명이다. 이들은 강연에서 북미 지역에서 진행되는 선교적 복음전도의 흐름과 원리,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 강사는 황덕영 목사와 이상훈 교수가 나선다. 황 박사는 새중앙교회 성도들을 일상의 선교사로 세워 지역 복음화를 이끈 한국형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 교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국교회에 선교적 복음전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선교적 복음전도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자 창의적 사역, 다음세대 등의 주제로 Ted 형식의 강연과 대담이 진행된다. 또 청년, 지역, 다음세대, 디아스포라, 비기니스, 이주민, 통일 등 8개 영역의 선택강의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전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김상준 목사, 이상훈 교수, 황덕영 목사, 윤은성 목사, 김상인 목사. ©노형구 기자

황덕영 목사는 프레스 컨퍼런스에 대해 “Future, Revival, Engage, Serve, Harvest’의 앞 글자를 딴 프레스 컨퍼런스는 한국교회가 미래를 향해 복음으로 부흥을 꿈꾸고 함께 연결되고 동참하며, 예수님처럼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역을 추구한다”고 했다.

이상훈 총장은 프레스 컨퍼런스가 시작된 계기를 두고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한 시점에서 프레스 컨퍼런스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며 “일방적 메시지 전달보다 다양

한 목소리가 모이고, 큰교회와 작은교회가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논의하는 장”이라고 했다.

황덕영 목사는 “교회에겐 복음전도라는 주님의 지상대명령을 어떻게 성취할지에 대한 과제가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로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사명을 첫째 우선순위로 삼고 회복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상훈 총장은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북미 지역에서 진행되는 선교적 교회론의 실질적 사역 예시를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싶다”며 “북미 지역의 건강한 교회들은 팬데믹 기간에도 복음 전도를 포

기하지 않았고 영혼구원을 위해 능동적으로 반응했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복음을 체현하는 소위 선교적 교회론이 대두됐는데, 이번 컨퍼런스는 이를 한국교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배울지 논의하는 장”이라고 했다.

윤은성 박사는 “현재 한국교회도 불신자들을 적극 섬기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방향을 견지하는 전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또 “부산 경남 300개, 서울 경기 200개 등 각 지역 캠퍼스에서 다음세대를 중심으로 기도과 예배 모임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각 지역교회에서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움직임도 활성화하는 중”이라고 했다.

황덕영 목사는 “한국교회에 여전히 과거 전통적 방식에 머무른 경향이 있지만, 다음세대, 이주민, 북한, 지역사회 등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있다”며 “이에 대한 새로운 사역 정보를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교적 교회론은 유행이 아니라 교회 본질이다. 이런 용어가 없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기 때문”

이라며 “선교하지 않은 교회적 경향성으로 이런 용어가 생겨났다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윤은성 박사는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작은교회 숫자가 많이 줄고, 전반적으로 중형대형 교회들이 감소했다고 한다”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모든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황 박사는 “코로나19 기간 이후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결정적 계기는 선교적 DNA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며 “한국교회가 그간 전도라는 주님의 지상대명령보다 교회의 구조적 틀이나 비본질적 사역에 매몰된 측면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인 선교적 본질을 되찾는 데 도움받길 바란다”고 했다.

이상훈 총장은 “선교는 특별한 한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역”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기성교회나 작은교회도 선교적 DNA를 회복해 사역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전세계 럭셔리 휴양 컬렉션
오직,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아너스 회원에게만

흘날리는 바람과 수많은 별이 수놓는 대자연의 압도감, 당신에게만 허락된 그곳에서 가장 경이로운 휴양을 선사합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얀트리 사우디아라비아 알올라

BANYAN TREE HAUNDAE BUSAN

Sanctuary for the senses

| 아너스 회원 글로벌 혜택 |
아너스 회원이 되어 전 세계 32개국 109개 호텔&리조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휴양 컬렉션을 누리십시오.

아너스 회원 모집 중 **1899.3318**